나의 종주, 만당 스님

특별기고



도심 스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종단과 사회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 오신 만당 스님의 열반이 마치 어제 같은데, 벌써 2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스님의 인자한 모습과 법문하시던 음성은 여전히 생생하고, 그 깊은 가르침은 가슴속에 여전히 울립니다. 생사일여(生死一如)라지만, 곁에서 더욱 배우고 따르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함에 스님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법우 이상 존재였던 스님

스님은 제게 법우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형님 같고 벗 같은 스님을 저는 '종주(宗主)'라 불렀고, 그렇게 평생을 마음속 의지처로 모셨습니다. 스님께 배운 자비심과 공심,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은 저를 지탱하는 근간이 돼 주었습니다.

스님과의 인연은 2012년 겨울, 영광 불갑사 무각선원에서 동안거 방부를 들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렵 스님은 불갑사 주지이자 초선 중앙종회의원이셨습니다. 복원 불사와 사중 살림, 종무 활동까지 많은 일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새벽 정진을 한 번도 거르지 않는 등 매사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처님 법 앞에 늘 한결같던 스님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당시 불갑사에는 별다른 소임 없이 머무는 스님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만당 스님께서는 그런 분들께 매달 보시금을 전했고, 병환이 있으면 병원에 직접 모시고 가거나 치료비를 보태는 등 살뜰히 보살피셨습니다.

제가 "스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여쭈니,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발염의하고 먹물 옷을 입고 있는 스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저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 한마디는 제 마음 깊이 남아 수행의 길을 다시 세우는 큰 이정표가 됐습니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 상임감찰 소임을 맡아 도선사에 머무르던 시절, 스님과 더욱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무원 사회부 종교평화위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던 시기, 스님께서는 종단의 미래와 종교 간 화합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위원장 소임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이후 4년간 스님은 위원회를 정비하고 대외 협력의 기반을 다지며, 종교 간 이해와 상생의 틀을 탄탄히 다져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2년간 함께 활동하며 스님의 원력과 실천을 가까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행 전법 행한 스님

스님과 인연은 전법 현장에서도 또 다름 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2015년, 제가 성불사 주지 소임을 맡았을 당시 사찰은 낡고 신도도 적어 사찰 운영은 물론 전법조차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스님은 눈발 날리는 겨울날, 김장통 여섯 개를 싣고 사찰을 찾으셨습니다. "절에 김장은 해 놨냐"는 따뜻한 물음은 그 어떤 물질적 도움보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스님의 걱정과 관심은 다시금 전법 의지를 세우는 힘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도 모범이셨습니다. 스님은 늘 "승가가 바로 서야 부처님 법이 바로 선다"고 강조하셨고, "종단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늘 공심(公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입적 하루 전 오후 6시 통화에서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걱정하셨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도 재가불자들을 위해 불교대학 강의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수행과 전법을 놓지 않으셨던 스님은 참된 수행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나의 종주' 만당 스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과 삶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남은 수행과 전법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만당 스님! 스님의 삶과 원력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정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속환사바해 다시 한번 광도중생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깨달음을 글로 배울 수 있을까

현불논단



지승도 명예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우리는 가시 세계만 본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볼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 불가사의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양자역학 과목 한두개만 들어도 감이 온단다.

양자역학의 원조인 붓다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다. 정확한 뜻과 문법만 익힌다면, 누구라도 진리의 세계를 헤아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논리가 실종된 불교가 성행하고 있다. 다르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략된 깨달음은 꿈속 잠꼬대에 불과하다. 언어도단의 진리를 언어로 재단하는 것이 가능할까? 양자역학이 논리를 통해 양자컴퓨터로 거듭났듯이, 연기와 공성도 올바른 개념만 습득한다면, 누구나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다. 모든 언어와 개념이 그러하듯, 매달리면 덫이지만, 바로 알면 뗏목이다.

"일체개고라면 바윗덩이도 고(苦)를 느끼는가?" GPT에게 물었다. "맞습니다. 일체는 유위법으로서, 바윗덩이도 조건 지어진 유위법이기에 고를 겪습니다."

사실 필자도 그렇게 알았다. '일체개고'란 한역 번역상 오류로, 정확한 문법으로는 '유루개고'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랬다. 마음을 가진 유정

다르마에 대한 바른 이해 없는
깨달음은 꿈속 잠꼬대에 불과
연기·공 개념 알면 삶 적용

물은 유루, 즉 번뇌를 남기기에 반드시 고를 겪는다는 얘기다. 바윗덩이는 마음이 없는 무정물이기에 고를 겪지 않는다. GPT 오류라기보다는 다르마에 대한 보편적 논리데이터가 부족한 탓이다. 일체가 '무상·고·무아'라고 통쳐서 이해하면 다르마에 대한 착각과 오해만 가중된다. '제행무상, 유루개고, 제법무아'라는 올바른 문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체법에는 유위법과 무위법이 있다. 일체법은 무아, 즉 공성을 속성으로 하기에 '제법무아'다. 이 중 유위법만은 조건 지어진 바 무상하기에 '제행무상'이다. 이 중 유루의 존재만은 반드시 고를 겪기에 '유루개고'다. 이처럼 분명한 논리로부터 착각 없는 불교는 시작된다.

깨달음도 논리로 풀어보자. 마음은 대상을 아는 작용으로서 유위법이다. 한편 깨달음도 마음이 하는 일이기에 유위법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마음이 아니라, 공성이다. 공성이라는 뭔가 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법의 무실체성, 무자성의 확인이다.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실체적 존재 없음이 대상이다. 다시 말해 연기적 존재 아닌 것이 없음을 확증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최후의 과학이라는 양자역학은 무위법마저 설명할까? 물질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고전역학과 달리, 양자역학은 관찰의식이 배제된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유정물마저 포섭하는 유위법의 상호의존성을 증명했다. 위대한 통찰이지만 이 또한 세속법에 머문다. 조건 너머, 논리 너머, 언어 너머, 마음 너머, 궁극의 진리 무위법이 남았기 때문이다.

社 說

스님 독립운동가의 삶 찾고 기억해야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암울한 어둠 속에서 조국 독립의 빛을 밝힌 독립운동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스님들이다.

불교계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내내 나라의 위기를 좌시하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백용성 스님과 만해 한용운 스님, 백초월 스님, 운허 스님과 같은 스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불법을 지키고 민중을 계몽하며 자주독립에 힘을 보냈다. 특히 사찰을 거점으로 민족교육을 실천하고, 불서 번역과 포교 활동을 통해 민족정신을 지키는 한편,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군자금을 모금해 전달하며 독립운동의 숨은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불교계 독립운동가는 몇몇 스님에 한정되어 있다. 대중들에게 덜 알려진 것은 물론 학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헌신적으로 앞장선 스님들이 많았지만, '종교인'이라는 인식에 갇혀 '독립운동가'로서의 진면모를 제대로 연구,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 특집을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다.

스님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독립운동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동국대 산하 학교 '선연'에 주목하자

현재 불교는 '출가 절벽 시대'를 맞이했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출가자 수는 2000년 528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2024년에는 81명이 출가했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연간 출가자 100명 선이 붕괴된 것이다.

출가자 감소는 한국사회의 탈종교화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맞물린 현상이지만, 계층포교의 붕괴 등 포교 실패도 주요 원인이다.

최근 '힘한 불교'가 MZ세대에게 어필되며 조계종은 젊은 신도를 확보하고 출가자를 늘리기 위해 대학 불교동아리를 지원하고 군포교, 단기 출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동국대 산하 학교에서 운영되는 소년 출가자 진흥 프로그램 '선연을 찾아서'를 주목할 만하다. 실제 17명의 학생이 출가를 결심해 소년 출가자 확대에 일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1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산하 학교 삭발식에서도 출가 의사를 가진 4명의 학생에 대한 삭발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 행자들은 '선연'을 통해 출가를 결심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선연'은 단순한 힐링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스님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나아갈 길을 고민해 출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다. 삶의 방향을 놓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불교가 전할 것은 '방향'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7월 23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7월 2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7월 2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7월 2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